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8. 18

7월 미국 소매판매: 헤드라인·컨트롤그룹 모두 예상치 하회

해외채권/크레딧 | 박지빈 | jibin@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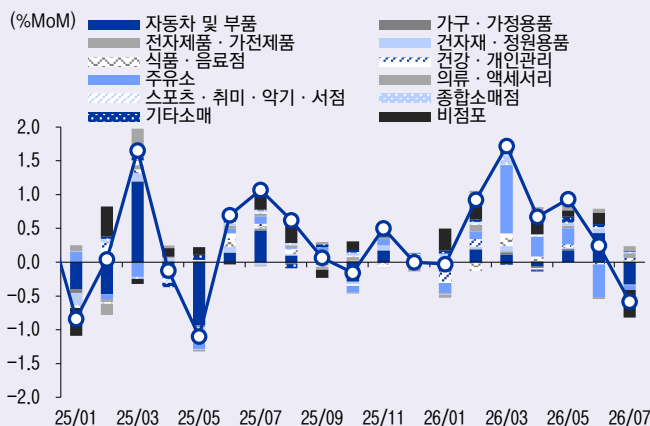
비점포·자동차 판매 부진에 소매판매 감소

7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감소하며 예상치(+0.1%)를 하회했다. 5개월 연속 증가한 뒤 하락 전환하며 1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YoY 상승률은 6월 6.8%에서 5.0%로 둔화되었다. 자동차 제외 소매판매는 -0.3%MoM, 자동차·주유소 제외 소매판매도 -0.2%MoM 감소했다. GDP 개인소비지출 중 상품소비 산출에 활용되는 컨트롤그룹(자동차·주유소·건축자재·음식서비스 제외) 소매판매는 -0.4%MoM 감소하며 예상치(0.3%)를 크게 하회했고, 6월 상승률은 0.5%→0.4%로 하향조정되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 중심의 비점포 판매가 -2.2%MoM 감소하며 전체 판매 부진을 주도했다(-0.41%p 기여). 자동차·부품 판매도 6월 2.4% 증가한 뒤 7월 -1.8% 감소하며 헤드라인을 -0.33%p 낮췄다. 휘발유 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주유소 판매(-0.9%) 역시 전월대비 감소했다. 헤드라인과 컨트롤그룹 판매가 동반 감소하면서 2분기 강화되었던 상품소비 모멘텀은 3분기 초 악화되는 신호가 나타났다.

조정 이후 반등 여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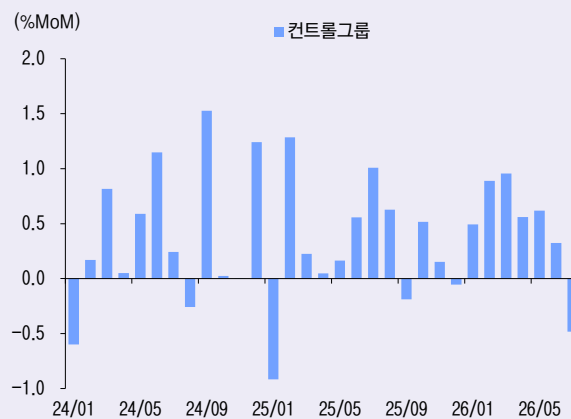
7월 소매판매 감소에는 자동차 판매의 6월 증가분 일부 되돌림, 휘발유 가격 하락,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6월 개최에 따른 소비 선반영 및 왜곡 등 일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의류(+1.9%), 건강·개인관리(+0.7%), 음식서비스·주점(+0.5%) 등 일부 업종 판매가 증가해 소비 부진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컨트롤그룹 소비가 6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나, 비점포 판매가 포함돼 있어 기초적 흐름의 전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용증가세와 임금상승률의 둔화 등에 따른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은 일시적 조정 이후 강한 반등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8월 소매판매와 컨트롤그룹의 반등 여부가 3분기 상품소비 흐름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림1 소매판매 월간 상승률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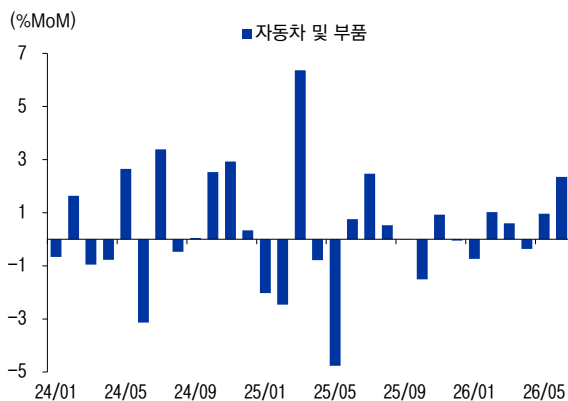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컨트롤그룹 소매판매도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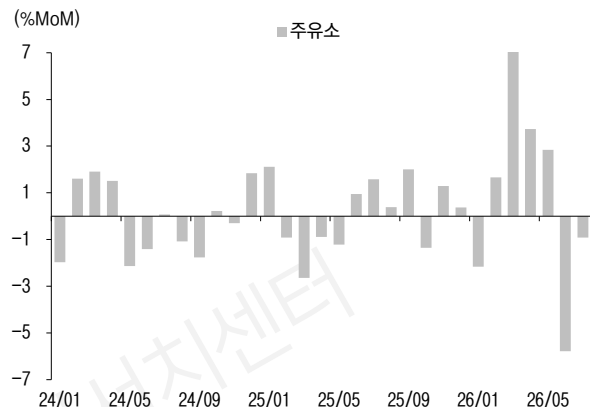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자동차 및 부품 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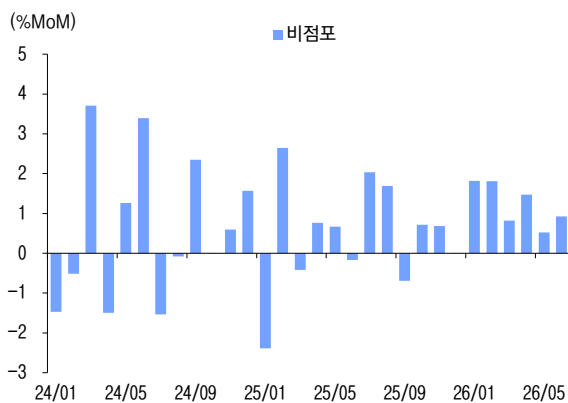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유소 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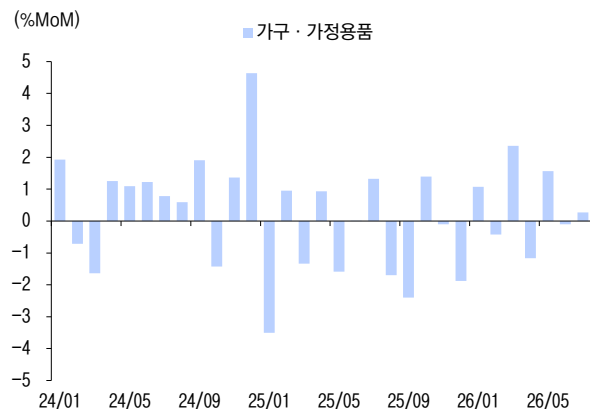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비점포 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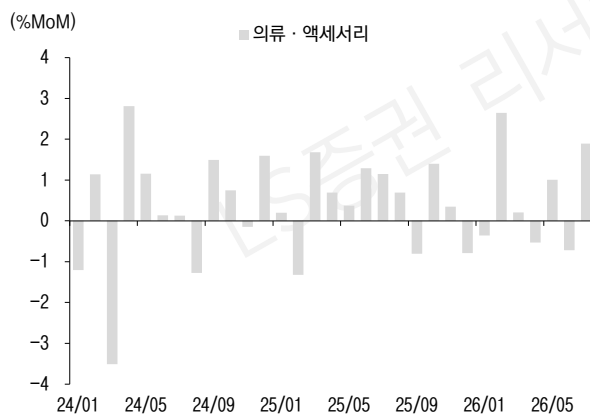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구·가정용품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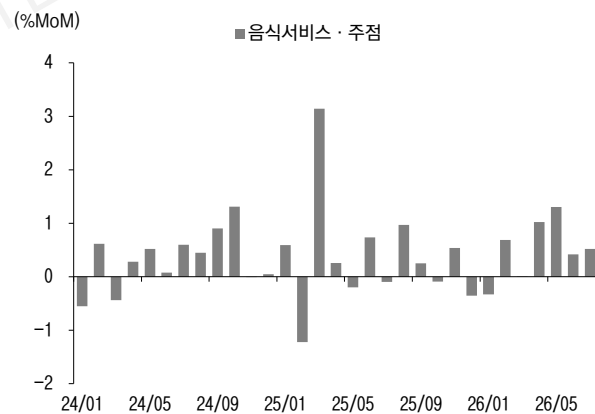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의류·액세서리 판매 증가율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음식서비스·주점 판매 증가율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